



2012 대선 D-1년 여론과 향후 대선 전망

2011년 12월 19일

정한울_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 대선 D-1년 기본 정치지표】

1. 29.7% 대통령 지지율, 정권심판론의 공고화로 이어질까?
 - 2009년 6월 노전대통령 서거 국면 이후 처음으로 30% 밀돌아
2. 민주통합당은 마(魔)의 100일 징크스 넘을까?
 - 한나라당 35.9%, 통합민주당 29.5%, 진보통합당 4.9%
 -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한자리수 지지율 격차 2-3개월이 최대

【2012 대선 변수: 안풍 지속될까?】

1. 안풍, 조정국면으로 접어드나? 9월 안철수 돌풍 이후 처음으로 지지 상승 마감
 - 단순 대선 지지율 : 11월 박 29.8%, 안 27.3% → 12월 박 29.2%, 안 23.3%로 5.9%p 격차
 - 한나라당 후보 및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 한나라당 후보 : 박근혜 선호 전체의 54.3%, 한나라당 지지층의 77.5%
 - 야권 후보도 : 안철수 33.8%, 손학규 13.3%, 문재인 9.3%, 민주당 지지층에선 안 39.8%
 - 1:1 구도에서도 안철수 대 박근혜 지지 격차 정체
 - 안 49.4% 대 박 39.4%로 10%포인트 차, 전월 대비 지지 격차 정체
 - 박근혜 대 손학규 53.0% 대 31.3%, 박근혜 대 문재인 54.4% 대 28.9%

2. 2012 대선 아젠다와 쟁점

- 최우선 국정과제 : 외치(外治)보다 내정(內政) 우선하라
 - 경제양극화 해소 29.5%, 경제성장 18.8%, 삶의 질 개선 14.9% 순
- 정치적 쟁점 : 정권 교체의 대안은? 정권교체 및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 “정권심판론” 64.8%, “야권통합론” 57.2%, 그러나 “민주통합당” 관심 없다 40.1%
 - “제3정당 창당 필요하다” 49.1% 대 “필요없다” 42.5%
 - “한나라당, 당 유지하며 쇄신” 50.2% 해야, 한나라당 지지층 당유지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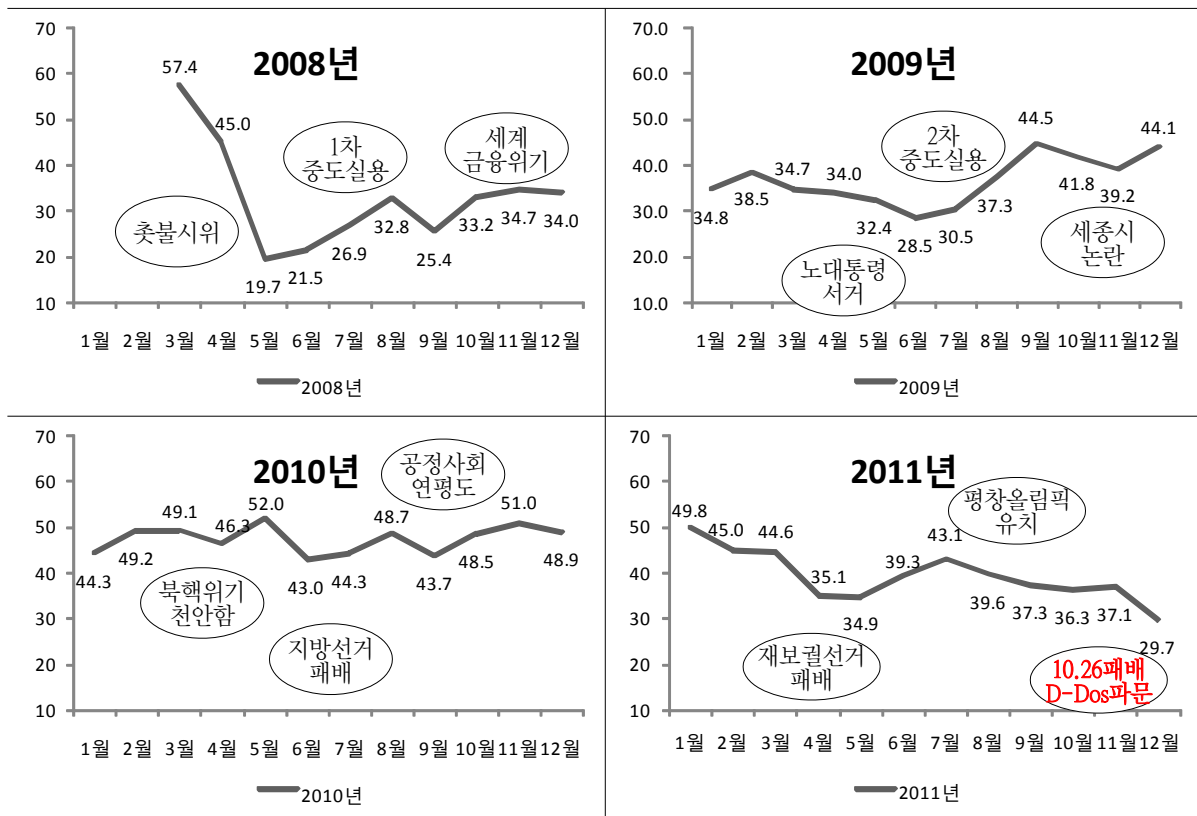
【2012 대선 D-1년 기본 정치지표】

1. 29.7% 대통령 지지율, 정권심판론의 공고화로 이어질까?

- 2009년 6월 노전대통령 서거 국면 이후 처음으로 30% 밀돌아

- 지난 11월 조사에서 한미FTA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에도 불구하고 37.1%로 30% 중반대를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제일저축은행 측에서 구멍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청와대 은폐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9.7%까지 떨어졌다.
- 비록 29.7% 지지율을 20%대로 보기에 무리스럽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밀던 것은 2009년 노대통령 서거 직후 6월 조사에서 28.5%를 기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10.26 서울시 재보궐 선거 패배 및 안철수 현상을 계기로 한 나라당 지지층 및 보수층 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3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이 정권 말기 최근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이은 레임덕 가속화 정권심판론을 공고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및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림1] 국정지지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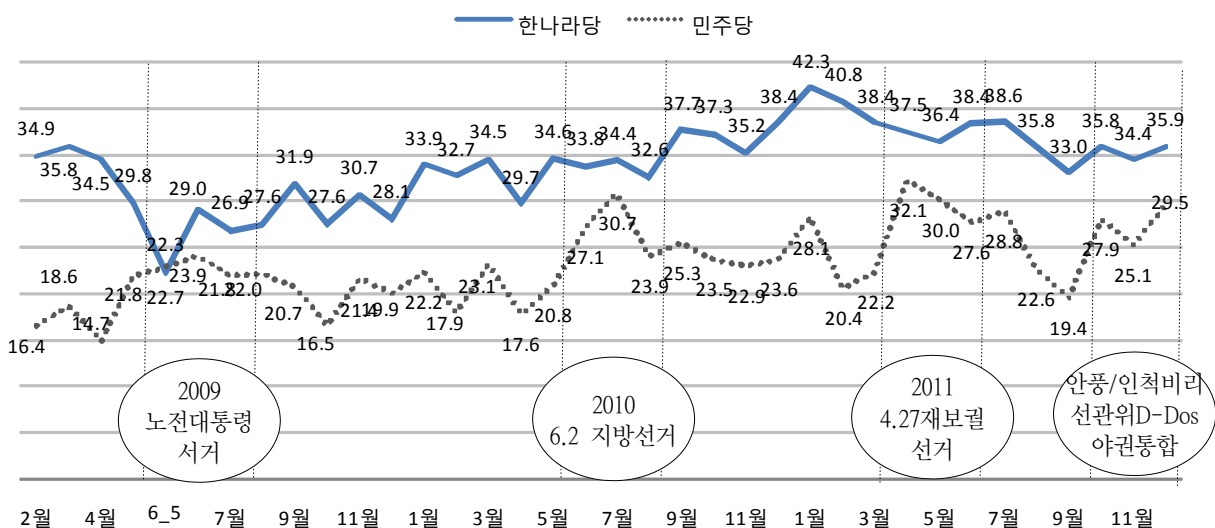


2. 공고한 한나라당 지지율, 민주통합당 마(魔)의 100일 징크스 넘을까?

한나라당 35.9%, 통합민주당 29.5%, 진보통합당 4.9%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비해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의 사퇴이후 당개혁방안을 둘러싼 내분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과 비슷한 35.9%를 기록했다. 반면 조사전일인 10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통합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9.5%로 30%에 육박함으로써 비교적 기분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통합합의 이후 10.5%로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했던 통합진보당은 한달 만에 지지율 반토막을 경험하며 4.9%로 내려 앉았다.
- 최근 연이은 정부여당의 각종 악재와 함께 통합전당대회에서의 폭력사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사가 이끄는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이루어내면서 야성향의 지지층의 기대가 통합진보당보다는 민주통합당 지지로 이전하며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6.4%포인트 차까지 좁혔다.
- 그러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림2]에서 보듯이 2009년 이후 양당간 지지율 격차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자리수로 좁혀진 지지율은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두 자리수 대로 벌어지는 패턴을 보여주어 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와 2009년 5-6월 노전대통령 서거국면,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직후 6-8월, 2011년에는 4.27 재보궐 선거 직후 4월-6월, 이후 10.26 재보궐선거 승리 및 한미FTA 기습처리 이후 한자리 수 지지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 반한나라당 정서에 안주하거나 선거승리에 자만할 경우 여지 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던 것을 고려할 때 새로 정당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지율 상승 후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 마의 징크스를 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2] 정당 지지율 변화 : 지지율 격차 변동의 패턴



【2012 대선 변수】

1. 안풍, 조정국면으로 접어드나? 9월 안철수 돌풍 이후 처음으로 지지 상승 마감

1) 단순 대선 지지율 : 11월 박 29.8%, 안 27.3% → 12월 박 29.2%, 안 23.3%로 5.9%p 격차

- 우선 단순 다자 대결구도에서 안철수 원장은 9월 조사에서 20.1%, 10월 조사에서 25.9%, 11월 조사에서 27.3%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조사에서 23.3%로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 박근혜 전대표 역시 11월 조사에서 29.8%, 이번 조사에서 29.2%로 안철수 원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했지만, 야권 후보들의 지지분산이 크게 반영되는 단순 대선지지율에서조차 오차범위 이상의 격차를 벌리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 통합이후 대표직 사퇴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나, 점차 정치적 발언을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 등 야권 주자,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 정몽준 전 대표는 3-5% 대 지지율에 머물면서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표1]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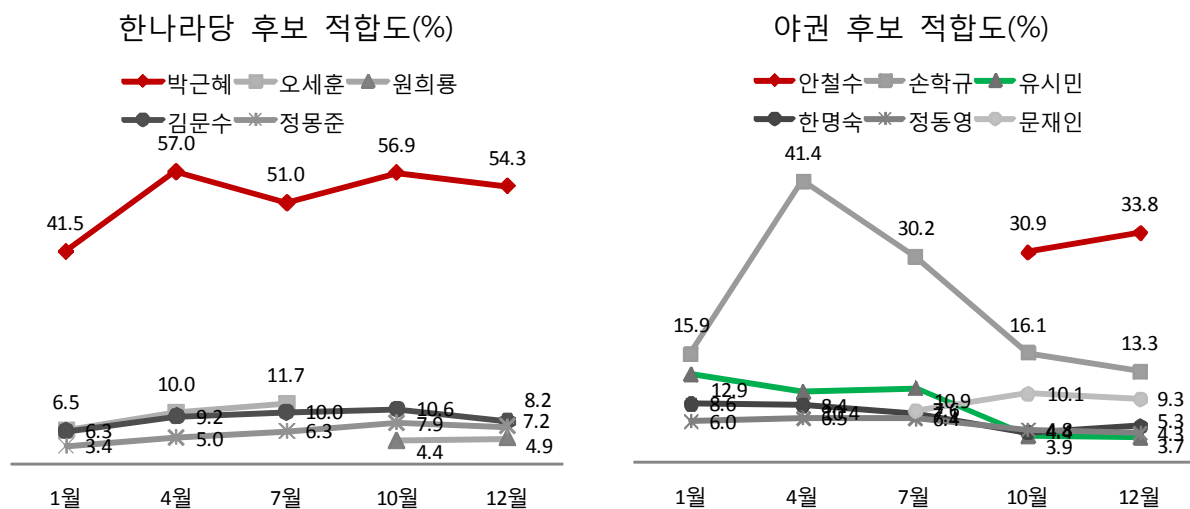
| | 12월 | | 11월 | | 10월 | | 9월 | | 8월 | |
|-------|-----|------|-----|------|-----|------|----|------|----|------|
| | 순위 | % | 순위 | % | 순위 | % | 순위 | % | 순위 | % |
| 박근혜 | 1 | 29.2 | 1 | 29.8 | 1 | 31.1 | 1 | 32.0 | 1 | 34.6 |
| 안철수 | 2 | 23.3 | 2 | 27.3 | 2 | 25.9 | 2 | 20.1 | - | - |
| 문재인 | 3 | 5.5 | 3 | 5.0 | 3 | 5.1 | 3 | 6.3 | 2 | 9.0 |
| 손학규 | 4 | 3.1 | 4 | 3.5 | 6 | 3.2 | 4 | 4.8 | 3 | 6.3 |
| 유시민 | 5 | 2.5 | 7 | 2.4 | 7 | 2.4 | 6 | 2.8 | 5 | 4.5 |
| 정몽준 | 6 | 2.2 | 6 | 2.6 | 5 | 3.3 | 5 | 4.0 | 9 | 2.9 |
| 정동영 | 7 | 2.1 | 10 | 1.6 | 10 | 1.1 | 10 | 1.0 | 10 | 1.9 |
| 김문수 | 8 | 1.9 | 5 | 3.3 | 4 | 3.6 | 7 | 2.7 | 7 | 4.1 |
| 한명숙 | 8 | 1.9 | 9 | 1.7 | 9 | 1.2 | 8 | 2.0 | 4 | 5.3 |
| 이회창 | 10 | 1.7 | 8 | 2.2 | 8 | 2.2 | 9 | 2.3 | 8 | 3.8 |
| 김두관 | 11 | 0.9 | 12 | 0.4 | 11 | 0.5 | 11 | 0.7 | 11 | 1.5 |
| 정세균 | 12 | 0.3 | 13 | 0.0 | 12 | 0.3 | 13 | 0.3 | 12 | 0.4 |
| 이재오 | 13 | 0.0 | 11 | 0.8 | 13 | 0.0 | 12 | 0.5 | 13 | 0.1 |
| 오세훈 | - | - | - | - | - | - | - | - | 6 | 4.3 |
| 기타/없음 | - | 25.4 | - | 19.5 | - | 20.3 | - | 20.3 | - | 21.4 |



2) 한나라당 후보 및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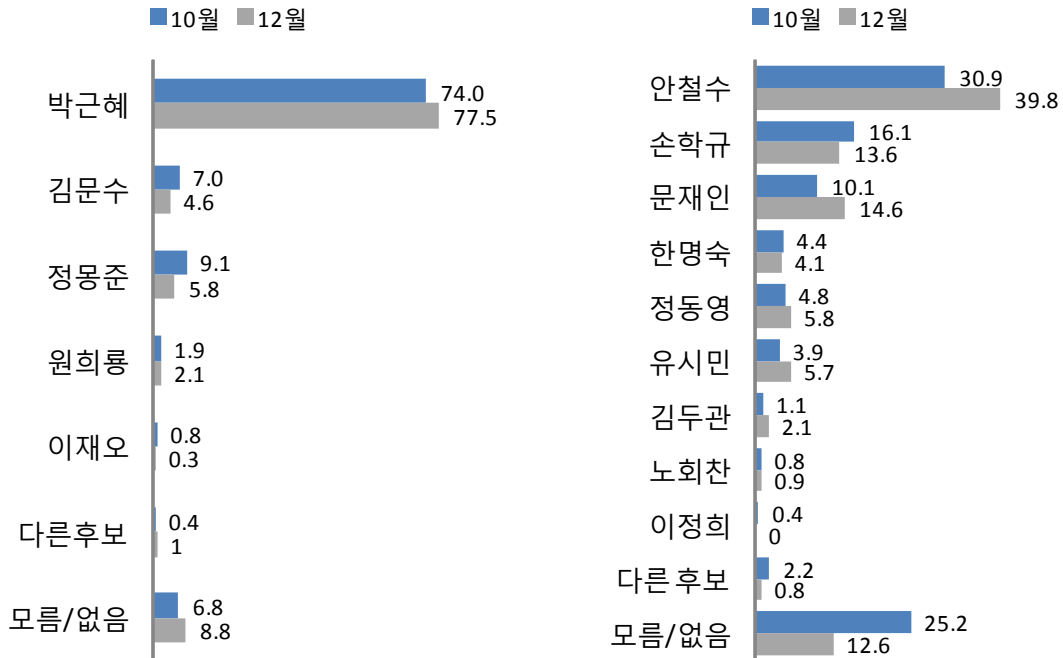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선호 전체의 54.3%, 한나라당 지지층의 77.5%
 - 야권 후보 적합도 : 안철수 33.8%, 손학규 13.3%, 문재인 9.3%, 민주당 지지층에선 안 39.8%
- 2004년 탄핵정국 이래 다시 한나라당 구원투수로 복귀를 앞둔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54.3%의 지지를 받아 김문수 지사(8.2%), 정몽준 전대표(7.2%)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당과 정부의 위기가 보수층이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지지결집을 공고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77.5%가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에서 박 전대표를 뽑았다.
 - 한편 야권 단일후보로는 안철수 원장을 뽑은 응답이 33.8%로 전월대비 약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손학규 대표는 13.3%로 하락세이며, 문재인 이사장 역시 9.3%에 그쳐 지난 10월 조사에서 10.1%로 두 자리수 진입이후 추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주목할 점은 현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 당대표인 손학규 대표보다 안철수 원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9.8%로 지난 10월 조사에서 30.9%에 그쳤던 것에 비해 상승했다는 점이다.
 -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박전대표로의 쏠림이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기 총선 불출마 및 신당창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손학규, 문재인 이사장 등 사이에 표의 분산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3] 한나라당과 야권 후보 적합도 평가



[그림4]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후보 적합도 평가

한나라당 지지층의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야권후보 적합도



3) 1:1 구도에서도 안철수 대 박근혜 지지 격차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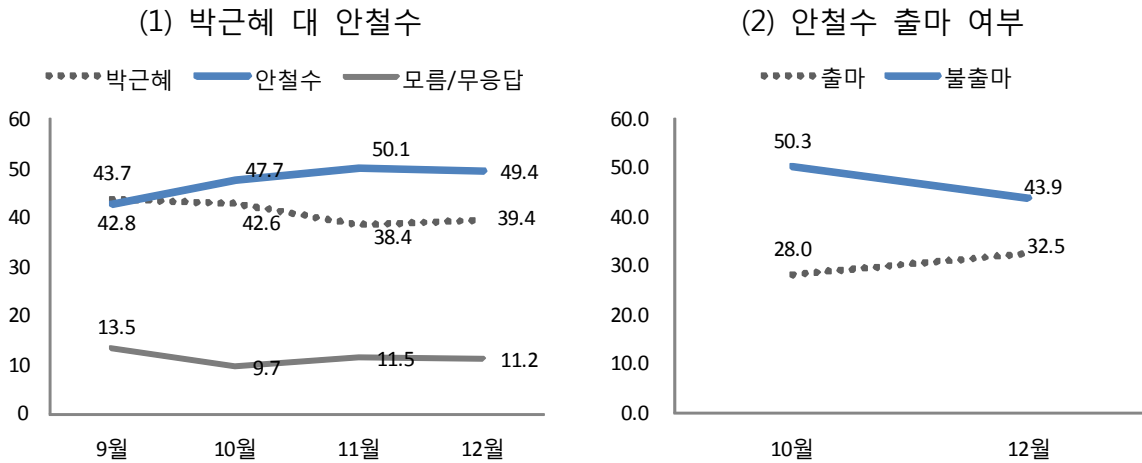
- 안 49.4% 대 박 39.4%로 10%포인트 차, 3개월 간의 지지율 상승세 마감

- [그림5] 일대일 가상대결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49.4%, 박전대표가 39.4%로 10%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11월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이 50.1%, 박전대표 38.4% 포인트로 11.7% 포인트 차이가 더 커졌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주자로서 출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11월 조사 28.2%에서 이번 12월 조사에서는 32.5%로 높아졌다.
- 출마 안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11월 조사 50.3%에서 12월 조사에서는 43.9%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지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 신당 창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단순지지도나 1:1 구도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율의 정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매달 지지율 급상승하는 국면이 일단락되고 조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이후 박전대표의 한나라당 수습과정과 통합야당의 야권 결집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한나라당과 통합야당의 행보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경우 잠재된 대안으로서 안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지율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안철수 원장이 1:1 대결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대표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위는 [표2]에서 처럼 진보/야당 지지층(젊은 세대, 이념적 진보층 등)에서 박 전대표의 대항마로서 안 원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중간층(무당파층, 중도층, 40대)의 지지율 격차 확대가 안 원장의 우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림5] 1: 1 가상대결 : 지지율 변화



[표2] 이념, 세대, 정당별 1:1 대결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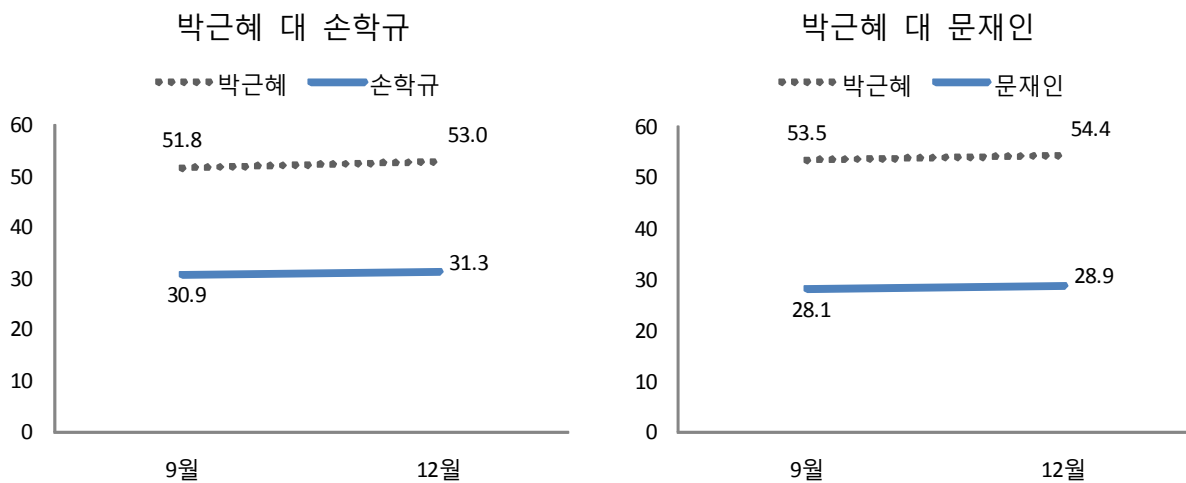
| | | 12월 | | 11월 | | 10월 | | 9월 | |
|----|------|-------------|-------------|-------------|-------------|-------------|-------------|-------------|-------------|
| | | 박근혜 | 안철수 | 박근혜 | 안철수 | 박근혜 | 안철수 | 박근혜 | 안철수 |
| 이념 | 진보 | 20.9 | 68.3 | 25.2 | 67.5 | 18.6 | 74.9 | 32.5 | 56.3 |
| | 중도 | 38.4 | 49.3 | 34.1 | 51.8 | 44.5 | 44.2 | 42.5 | 46.9 |
| | 보수 | 55.9 | 36.4 | 50.1 | 39.4 | 57.9 | 33.8 | 53.5 | 29.1 |
| 세대 | 20대 | 28.7 | 63.3 | 16.7 | 74.5 | 23.7 | 67.6 | 29.8 | 59.6 |
| | 30대 | 29.0 | 64.1 | 26.6 | 66.7 | 30.0 | 65.8 | 28.3 | 60.8 |
| | 40대 | 31.3 | 56.2 | 33.4 | 54.3 | 45.7 | 46.3 | 40.9 | 46.6 |
| | 50대 | 49.2 | 39.1 | 54.7 | 31.5 | 51.5 | 37.4 | 50.4 | 32.9 |
| | 60대+ | 60.3 | 22.7 | 62.0 | 22.1 | 62.0 | 21.0 | 70.2 | 12.9 |
| 정당 | 한나라 | 80.3 | 13.5 | 75.0 | 15.1 | 84.5 | 8.5 | 74.7 | 16.6 |
| | 민주통합 | 11.2 | 81.4 | 12.7 | 78.4 | 17.2 | 78.8 | 24.3 | 68.9 |
| | 통합진보 | 3.8 | 91.8 | 9.4 | 84.7 | | | | |
| | 다른야당 | 19.0 | 73.0 | 20.0 | 68.6 | 23.1 | 71.2 | 29.5 | 62.1 |
| | 무당파 | 25.6 | 47.1 | 31.6 | 48.6 | 29.6 | 54.4 | 30.4 | 44.8 |



4) 박근혜 대 손학규 53.0% 대 31.3%, 박근혜 대 문재인 54.4% 대 28.9%

- 한편 박근혜 전대표 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간의 1:1 가상대결을 보면 손대표나 문이사장은 아직 박 전대표에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그림6]에서 손대표의 경우 53.0%대 31.3%, 문이사장의 경우 54.4% 대 28.9%로 20% 포인트이상의 지지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9월 조사 이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6] 박근혜 대 손학규, 박근혜 대 문재인 1 : 1 구도



2. 2012 대선 아젠다와 쟁점

1) 최우선 국정과제 : 외치(外治)보다 내정(內政) 우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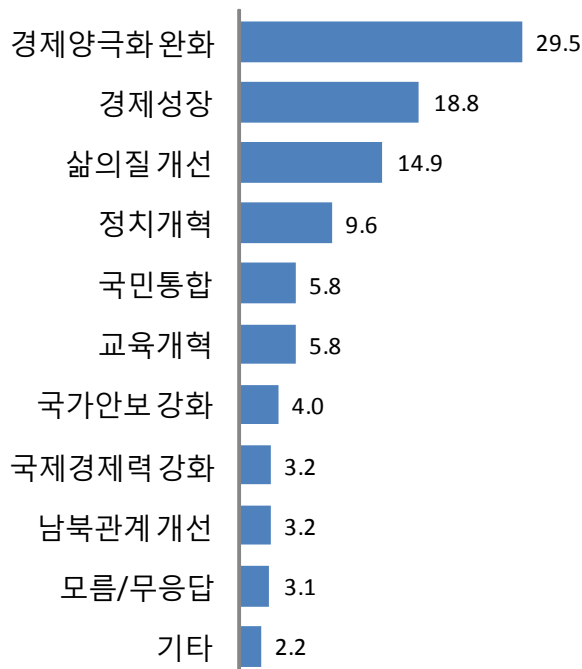
경제양극화 해소 29.5%, 경제성장 18.8%, 삶의 질 개선 14.9% 순

- 차기 대선의 최대 정책 쟁점은 경제양극화 해소, 경제성장과 같은 경제적 아젠다 및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고,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이 18.8%,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꼽은 응답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 돌풍 이후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쇄신 및 정당개혁 등 정치적 개혁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응답이 9.6%로 나타났으며, 국민통합과 교육개혁이 각각 5.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안보 강화를 꼽은 응답은 4.0%, 국제경쟁력 강화나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대외 과제를 꼽은 응답은 각각 3.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다. 결국 외치 영역보다 내치 특



히 경제관련 아젠다들이 차기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7]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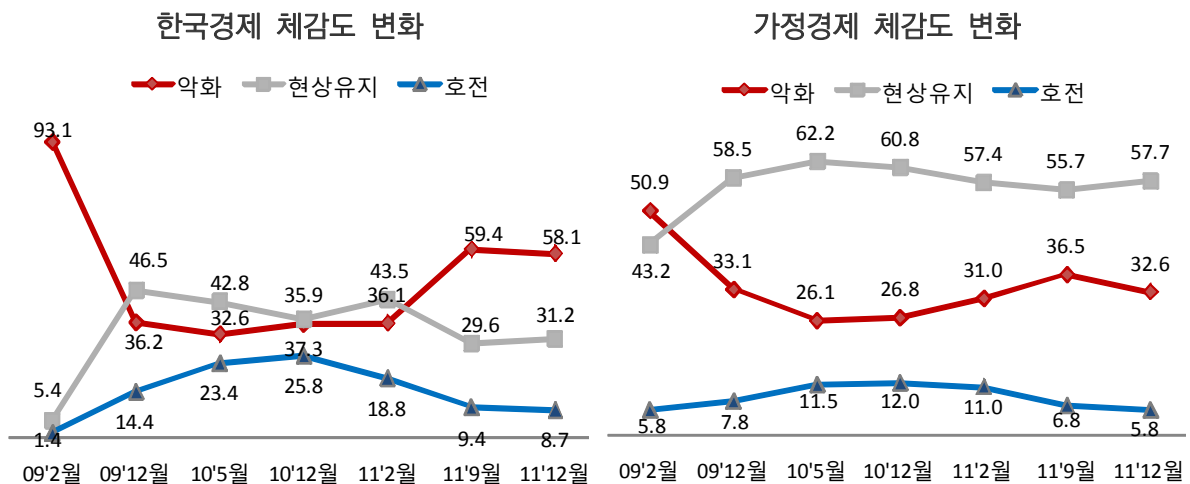
2) 경제악화와 정권심판론

- 이렇게 외치 영역보다 내치 영역 특히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문제나 삶의 질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올 해들어와 심각해져온 체감경제의 악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8]에서 한국경제 체감도의 경우 현재 국민들의 체감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 특히 한국경제 상태에 평가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추세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체감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추세였다. 세계금융위기 직후 조사인 2009년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93.1%에 달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는 체감경제가 호전되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한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25.8%까지 늘어나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35.9% 수준까지 떨어졌다.
-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환율 및 금리 불안,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여론은 9.4%까지 줄어들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11월 59.4%, 12월에서 58.1%까지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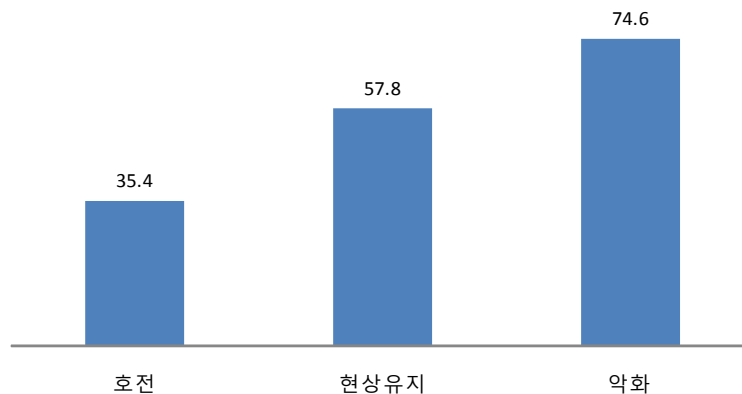


- 한편 가정경제인식도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0년 5월에는 가정경제상태가 나빠졌다는 여론이 26.1%까지 떨어질 정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나빠지고 있다는 여론이 2011년 2월 조사에서는 31.0%로 올랐고, 최근 4-5개월 동안에는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37% 수준을 오가고 있다. 이번 9월 조사에는 가정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5%로 나타난 반면 호전되었다는 평가는 6.8%, 12월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5.8%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하락 수준까지 떨어졌고 현상유지는 57.7%, 악화되었다는 평가는 32.6%였다.
- 이런 체감경제의 악화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투표의 정서를 강화시킨다. [그림9]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별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비율을 살펴보면 국가경제가 좋아졌다고 보는 경우 35.4%가 차기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경제가 1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자의 경우 57.8%나 정권심판론에 동의했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무려 74.6%가 정권심판론에 공감하고 있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볼수록 정권심판 의사가 분명해지고 있다.

[그림8]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



[그림9] 국가 경제인식별 정권심판론 비율(%)



3) 정치적 쟁점 : 정권 교체의 대안은? 정권교체 및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정권 심판론 64.8%, 야권통합론 57.2%, 안철수 현상은 새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

- 현재 2012 대선 구도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정권심판론과 그 대안으로서의 야권의 통합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30%대로 내려오면서 정권교체론에 대한 지지가 60%를 상회하고 있다. 4월 조사에서 61.9%, 7월 조사에서 55.8%로 다소 떨어졌지만, 10.26 재보궐 선거이후 다시 67.2%, 현재는 64.8% 정도가 정권심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 그 대안의 하나로서 야권의 통합론 자체에 대해서는 과반이상이 공감을 갖고 있다. 4월 조사에서 57.2%, 7월 조사에서 53.9%, 10월 조사에서 59.3%, 이번 12월 조사에서 57.2%가 야권의 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심판론 및 야권 통합에 대한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지지 35.4%, 관심 없다 40.1%, 반대 18.9%”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이 과제

- 그러나 현재의 야권통합은 대안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야권통합론에 대한 과반이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야권 통합을 명분 삼아 진행한 민주당, 시민참여당, 한국노총의 통합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35.4%, 반대 18.9%로 찬성이 많았지만, 나머지 40.1%는 민주통합당의 통합결정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야권 통합의 원칙에는 공감대가 넓지만 통합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7%가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통합에 지지를 표했고 나머지는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야권통합론에는 과반이상이 갖고 있는 공감대를 어떻게 현재의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로 이끌 것인가가 민주통합당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도 기대반 우려반 : 필요하다 49.1%, 결국 안철수 원장 참여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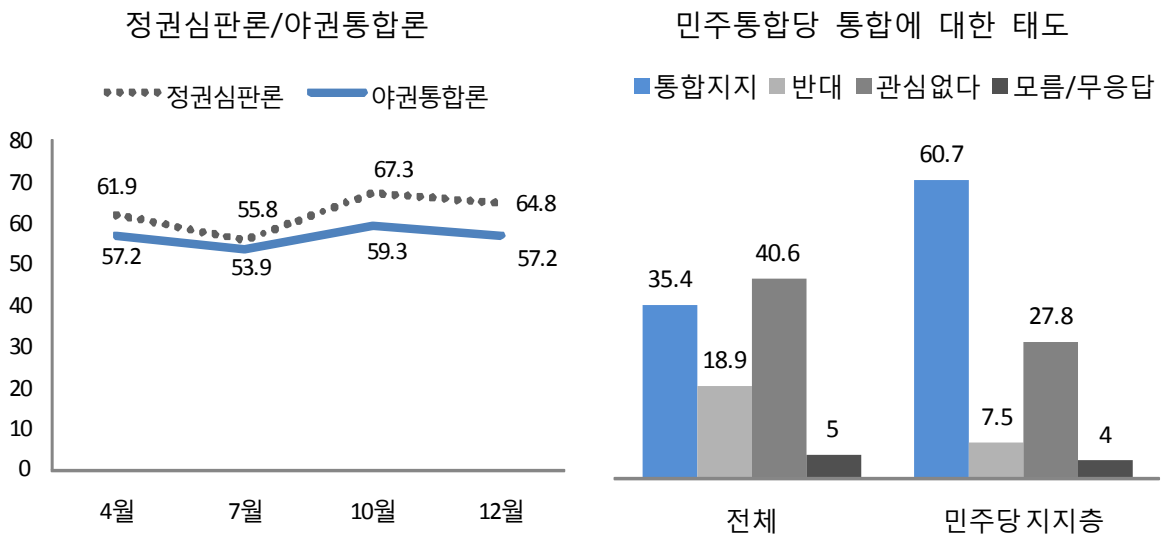
-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철수 원장으로 대표되는 제3의 세력, 제3의 정당의 추진이 고려되고 있다. 지난 9월 안풍 등장 이후 한나라당도 민주당 등 기존정당과 다른 정당이 필요한 가 물어본 결과 9월에는 44.2%, 10월 47.8%, 11월 51.3%로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2월 조사에서는 그 필요성의 공감비율이 49.1%로 11월 조사 이후 상승세가 멈추었다. 안철수 원장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철수 원장이 신당창당 및 총선출마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달 초 기자회견 이후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둔화되고, 야당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재편되는 등 기존 야권 내에서의 통합신당들이 등장한 것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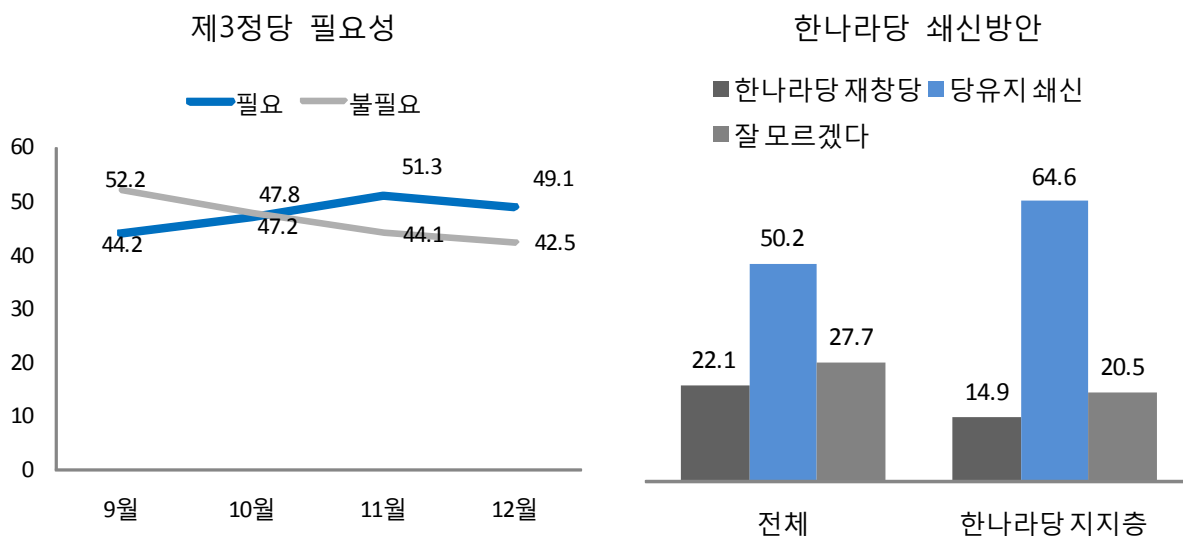
한나라당 쇠신 방향 : 재창당 22.1%, 당유지 쇠신 50.2%, 모름 27.7%, 한나라당 지지층 당유지 64.6%

- 또 대선채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여야 공히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을 데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전대표의 사표이후 박근혜 전대표가 비상대책위를 이끌며 한나라당 쇠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장개혁파의 경우 한나라당 정리 및 재창당을 선호하는 반면 친박계에서는 한나라당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개혁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박전대표는 재창당을 뛰어넘는 개혁을 약속했다. 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22.1%는 재창당을, 50.2%는 당을 유지하면서 쇠신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64.6%가 당을 지키면서 쇠신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형적인 변화보다 실질적인 변화와 정당체제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여론이 우세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0] 정권심판론/야권통합론 및 민주통합당 통합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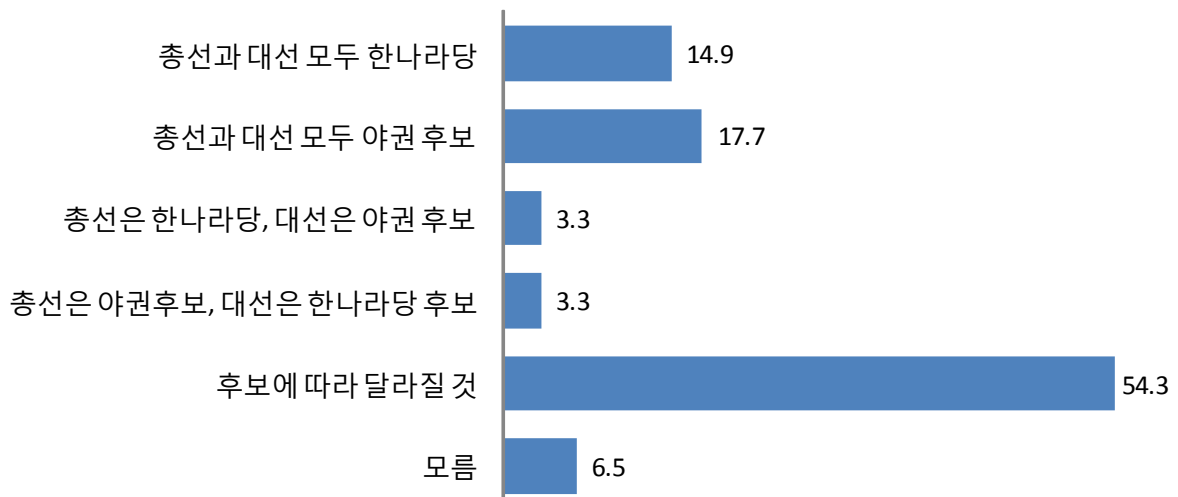
[그림11] 한나라당과 야권 후보 적합도 평가



4) 총선과 대선 : 총선 투표 대선으로 이어질까?

- 내년 총선의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보면 높은 정권심판론으로 인해 여권보다는 야권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안철수 원장의 효과가 대선까지 지속된다고 보면 역시 총선과 대선 모두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선이 아무래도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그러나 이를 절대시할 수 없는 것은 총선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 선거에서 지이번 조사에서 현재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을 찍겠다고 한 응답자는 15%, 총선과 대선 모두 야권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18% 수준으로 열 명 중 세 명 만 총선과 대선에서 같은 성향의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후보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다. 결국 총선에서의 후보 공천 및 대선의 경우 후보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행동하는 무당파, 한나라당, 비야당 성향의 스마트한 중도층의 선택이 총선과 대선을 좌우할 텐데, 현재 반한나라당, 비민주/비야당의 상층적 태도가 공존하는 조건에서는 이들 중도무당파층의 선택이 특정세력에 대한 전폭적 지지보다는 적절한 균형과 견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선거정국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림12] 총선과 대선에서의 투표 선호 차이



2011년 EAI 단행본 시리즈

- 여론티리핑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 여론티리핑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 외교안보시리즈 9. 이동률(편)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EAI
- 외교안보시리즈 10. 한상진·이숙중(공편)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서울: EAI
- 외교안보시리즈 11. 하영선(편)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서울: EAI
- 외교안보시리즈 12. 전재성(저) 《동아시아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EAI (신간)
- 민주대전략 시리즈 11. EAI거버넌스연구팀(저) 《한국의 내셔널 어젠더》 서울: EAI
- Byung-Kook Kim and E.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 Sook-Jong Lee and J. Melissen. (eds).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Palgrave Macmillan.

2011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103-1호. "역대 정권 레임덕 현상과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과제", 정한울 (2011. 3. 17)
- 201104-1호. "한국사회 이념 무드의 변동과 정치적 함의", 정한울 (2011. 4. 12)
- 201105-1호. "안티 한나라당 세대, 30대의 정치행태 분석", 정한울 (2011. 5. 10)
- 201105-2호. "4.27 재보궐 선거와 중산층의 선택", 정한울 (2011. 5. 10)
- 201106-1호. "한국 정치사회어젠다의 정책선호 지형 : 국민여론과 정치엘리트의 선택", 정한울 · 이근수 (2011. 6. 20)
- 201107-1호.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인식지형 분석과 주민투표 전망", 정한울 (2011. 7. 25)
- 201108-1호. "여론을 통해 본 한미FTA : 국회비준 시기 신중론의 급부상", 정원철 (2011. 8. 03)
- 201108-2호.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식 변동 요인과 전망", 정한울 (2011. 8. 22)
- 201109-1호. "SMART(Swing, Middle, Ambivalent, Responsive, Tricky) 유권자가 서울시장 결정할 것", 정한울 (2011. 9. 21)

2011년 EAI 여론티리핑 시리즈

- 94호.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정한울·정원철. (2011. 2. 21)
- 95호. "27개국 국민이 바라본 17개국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한울·정원철. (2011. 3. 7)
- 96호. "2011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 정한울. (2011. 3. 28)
- 97호. "4.27 재보궐 선거와 향후 정국 변화 전망" 정한울. (2011. 4. 30)
- 98호.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 변화 평가: 여야 개혁 기대 못 미쳐" 정한울. (2011. 5.30).
- 99호. "향후 10년 한국사회 핵심 정책 분야." 정원철. (2011. 6. 7)
- 100호. "7·4 한나라당 전당 대회와 현 정국 핵심 이슈" 정한울. (2011. 6. 27)
- 101호. "최우선 국정아젠다, 경제와 삶의 질 : MB지지 상승과 문재인의 부상" 정한울·정원철. (2011. 8. 8)
- 102호. "주민투표 이후 복지정국과 계급정치의 부상: 여당 지지층의 박근혜 쏠림 현상과 문재인 신드롬." 정한울. (2011. 8.29)
- 103호. "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정한울. (2011. 9.26)
- 104호. "10.26 서울시 재보궐 선거 전망 : 선거구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정한울 (2011. 10.6)
- 105호. "10.26 서울시 보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파장" 정한울 (2011. 10.31)
- 106호. "한미FTA 비준처리 및 이후 정국" 정한울. (2011.11.28)
- 107호. "2011 파워기관 신뢰도·영향력 조사" 정한울. (2011.12.15)



EAI 동아시아연구원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말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YTN·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진행한다.

12월 조사개요

| | |
|------|--|
| 조사일시 | 2011년 12월 19일 (1일간) |
|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
|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
|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3.5\%$ |
| 조사방법 |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방식) 전화면접조사(CATI) |
|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www.eai.or.kr) |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
| 응답율 | 10.4% |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 | |
|-----|---|
| 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 연구진 |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